AMNESTY INTERNATIONAL

차별 없는 별

우리 별에서 만날 수 있는 차별 이야기!
차별 없는 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빈 칸에 써봅니다.

1.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2.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나요?
3.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4. 내가 만약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까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써봅니다.

1 랄랄라의 이야기

랄랄라는 노래 부르기에 탁월한 소질이 있는 어린이에요. 랄랄라는 학급 분위기가 우울할 때마다 앞에 나와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워요. 그런데 언제나 명랑한 랄랄라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장래희망을 발표할 때 랄랄라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자, 친구들이 "뚱뚱한 가수가 어딨냐!"고 놀리는가 하면 "너 그렇게 밥을 많이 먹으니까 뚱뚱하지! 가수가 되려면 밥부터 줄여"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랄랄라는 친구들이 자기를 편하게 생각하고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로 생각하고 싶지만, 살을 빼지 않으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랄랄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요.

2 사랑이의 이야기

사랑이와 엄마는 할머니댁을 방문하고 밤늦게 버스를 탔어요. 조용하던 버스에 술에 취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이 더러운 놈아!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아랍 사람이야?"라며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외국인으로 보이던 사람은 한국말로 "아저씨 저 아랍사람 아닙니다. 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술 취한 아저씨는 더 화를 내며 "시끄러워! 아랍놈아!"라고 소리 질렀어요. 결국엔 다른 승객이 나서서 "아저씨!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라고 했어요. 결국, 소란스럽던 버스는 술 취한 아저씨가 내리고서야 조용해졌지만, 사랑이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 같지 않아 그 상황이 자꾸 생각났어요.

3 쿵쿵이의 이야기

쿵쿵이의 동네에 구립도서관이 새로 생겼어요. 쿵쿵이는 올해 중학교에 올라간 한 살 터울의 형과 매일매일 도서관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읽고 싶던 책 실컷 읽어야지!" "영화도 볼 수 있대!" 그런데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린이열람실뿐이었어요. 쿵쿵이는 형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고 영상자료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관리자 아저씨는 "어린이는 어린이열람실에 가면 돼요. 일반열람실에는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고, 어린이들이 소란스럽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쿵쿵이도 중학생 형이랑 함께 있고 싶은데 6시만 되면 문을 닫는 어린이열람실에 따로 있어야 해요.

4 명랑이의 이야기

명랑이의 가족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다같이 식당에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명랑이는 오랜만에 사촌 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요. 다리가 불편한 사촌 형도 평소에는 외출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일찍 도착한 명랑이는 친척들이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탄 형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식당 주인이 "휠체어 가지고는 못 들어와요. 바닥에 비싼 나무 깔았는데 다 상하잖아요"라고 하는 거에요. 고모는 큰아버지에게 "그러게 애 고생스럽게 왜 데려왔어. 업고 들어와야지 뭐"라고 했어요. 명랑이는 형이 외출하기 힘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5 당당이의 이야기

현장학습을 떠나는 날이에요. 당당이는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처음이라 매우 설렜어요. 드디어 출발! 신 나게 달리던 버스는 휴게소에서 15분간 쉬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간식거리를 사오기 위해 당당이와 친구들은 잽싸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아니, 그런데 남자 화장실과 다르게 여자 화장실에는 줄이 문밖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당당이와 친구들은 차례를 기다려 화장실에 갔다 오니 시간이 부족했어요. 간식도 못 사고 허겁지겁 버스로 돌아온 당당이는 남자아이들이 간식까지 사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당당이는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시간도 더 걸리는데 왜 화장실 개수가 똑같은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억울해했어요.

6 땡땡이의 이야기

땡땡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부모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으로 반을 나누기로 했어요.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수업 진도와 수준에 불만을 느낄 수 있고,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우수반', '보통반'으로 나눈 거에요. 이번에 땡땡이는 점수가 조금 낮아 '보통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수반' 친구들을 보기가 왠지 모르게 창피했어요. 땡땡이의 단짝 친구는 '우수반'에 들어갔어요. 땡땡이는 단짝 친구와 반은 달라도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꼭 '우수반'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땡땡이는 시험을 칠때마다 긴장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어느 누구도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 돼요"

세계인권선언 2조

AMNESTY INTERNATIONAL

차별하면 안돼요

성별, 인종, 종교, 언어, 문화뿐 아니라 생각과 관심사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차별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권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름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차별 없는 별

우리는 모두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피부색이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국적,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일주일 동안 차별과 관련된 경험을 생각하며 질문에 ○ △ X로 체크해보세요.
- 차별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와 생각을 써보며나와 다른 사람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차별하면 안돼요!

"나는 다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름 : _____

AMNESTY INTERNATIONAL

차별없는 별 만들기 첫째 주

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다른 친구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차별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차별에 맞서 행동한 적이 있나요?	

차별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나 생각을 써보세요.

차별없는 별 만들기 둘째 주

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다른 친구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차별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차별에 맞서 행동한 적이 있나요?	

차별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나 생각을 써보세요.

차별없는 별 만들기 셋째 주

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다른 친구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차별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차별에 맞서 행동한 적이 있나요?	

차별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나 생각을 써보세요.

차별없는 별 만들기 넷째 주

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다른 친구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차별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차별에 맞서 행동한 적이 있나요?	

차별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나 생각을 써보세요.